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반도체 수출 모멘텀 견고, 삼성전자가 이끈 코스피 강세

- 반도체 수출 모멘텀 재확인, 대형 반도체주 반등
- 중동 리스크에 유가 상승, 미국 CPI 발표 앞두고 금리 경계 확대
- 수급 방향성 부재, 실적/수주 모멘텀에 따라 엇갈린 업종 희비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Commodity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을 원자재 슈퍼 사이클

- 뒤늦게 반영될 유동성. 유동성 Proxy인 금 가격은 올 연말부터 내년 원자재 슈퍼 사이클 가능성 제시
- 빨라지는 AI 산업화, 그러나 이로 인해 팽창하는 원자재 수요와 달리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공급
- 이러한 가운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중동 공급망, 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 테마 주목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2Q26 Review] 바텍: 미국서 보너스 받고, 유럽으로

- 26년 매출액 4,654억원(YoY+9%), 영업이익 616억원(YoY+12%) 전망
- 1Q 부진에도 2Q 외형 성장과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로 실적 회복
- 하반기를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연간 유의미한 영업이익 성장 가능

한송협. Songhyeop.han@daishin.com

[고배당 고금리 2Q26 Review]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짧게 확인하고 길게 보자

- 2Q26 양호한 실적에도, 기대 이벤트 소멸로 당일 주가는 -6.4% 하락
- 3Q26 비용 부담에도 타이어 OP 4,000억원 중반대의 이익체력 예상
- 1) 테네시 플랜트업, 2) 배당성향 확대로 중장기 기업가치 우상향 예상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2Q26 Review] 신세계: 모든 사업부가 그냥 다 좋다

- 백화점 국내 및 인바운드 매출 호조로 2분기 기준점 매출 27% 성장
- 면세점도 대규모 흑자 전환 기조 지속
- 자회사 부진 경쟁사와 달리, 모든 사업부가 다 세계 좋아지는 상황

유정현. jung Hyun.yu@daishin.com

[2Q26 Review] 서울반도체: 2Q 매출 증가는 긍정적

- 2Q26 영업이익(35억원)은 흑전(yoy/96.3% qoq), 추정 하회
- 3Q26 영업이익은 50억원(흑전 yoy/43.3% qoq) 추정
- 전장향 LED 매출 확대 등 고신뢰성 매출 증가에 신뢰성 확인 필요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2Q26 Review] LS 에코에너지: 2Q 예상을 상회, 신사업 추진도 구체화!

- 2Q26 매출과 영업이익은 40%(yoy), 7%(yoy) 증가, 컨센서스 상회
- 고부가인 초고압 전선 및 소재 관련한 매출 증가, 믹스 개선 확대
- 2026년 영업이익은 23.6%(yoy) 증가 추정, 희토류 사업 구체화 진행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반도체 수출 모멘텀 견고, 삼성전자가 이끈 코스피 강세

- 반도체 수출 모멘텀 재확인, 대형 반도체주 반등
- 중동 리스크에 유가 상승, 미국 CPI 발표 앞두고 금리 경계 확대
- 수급 방향성 부재, 실적/수주 모멘텀에 따라 엇갈린 업종 희비

반도체 수출 모멘텀 재확인, 대형 반도체주 반등

한국 8월 1~10일 수출액은 213억달러로 전년 대비 +45.3%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 경신. 특히 반도체 수출은 +155.4% 증가한 100억달러로 전체 수출 호조를 주도했고, DRAM 수출 단가도 상승세를 지속. 이에 반도체 수출/실적 모멘텀을 재확인했으며, 메모리 가격 정점 통과 우려도 일부 완화

다만 AI 투자와 관련한 부담요인도 상존. 엔비디아는 아폴로, 블랙록, 블랙스톤, 브룩필드, 골드만삭스, KKR과 함께 5,000억달러 규모의 AI 컴퓨팅 전용 금융 플랫폼을 출범.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지만, AI 생태계 내 순환금융 논란이 재차 부각

최근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대형 반도체가 반등하며 코스피 상승을 견인. 반면 코스피 대비 강세가 뚜렷했던 코스닥은 대형주로의 수급 회귀에 상승세 둔화

반도체: 삼성전자(+4.1%), SK하이닉스(+0.4%), 한미반도체(+3.7%)

중동 리스크에 유가 상승, 미국 CPI 발표 앞두고 금리 경계 확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전쟁 배상금 요구에 대응해 이란에 배상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여기에 이란 최고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도권을 강조하고, 후티 반군이 홍해 연안 사우디 정유시설을 공격하며 중동 불확실성 재차 확대

WTI와 브렌트유 선물은 각각 82달러, 88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며 위험선호 위축. 한편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 차례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긴축 경계감이 지속

한국 시간 12일(수) 오후 9시 30분 발표되는 미 CPI를 대기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중동 리스크에 대한 경계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재차 4.7% 수준까지 상승

수급 방향성 부재, 실적/수주 모멘텀에 따라 엇갈린 업종 희비

수급 방향성 부재 속 실적/수주 모멘텀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 장세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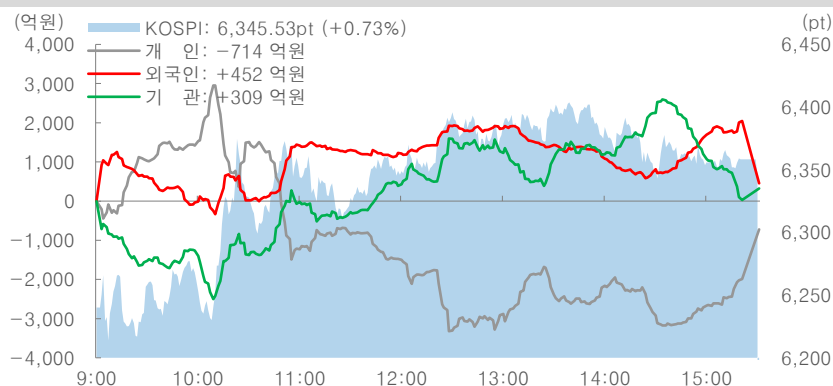
제약/바이오: 셀트리온(+4.7%), 유한양행(+4.4%), 삼성바이오로직스(+2.6%)

화장품: 코스맥스(+3.2%), 달바글로벌(+1.9%), 한국콜마(+1.9%)

조선: HD현대중공업(-5.5%), 한화오션(-5.7%), 삼성중공업(-3.3%)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4.7%),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7.7%)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을 원자재 슈퍼 사이클

- 뒤늦게 반영될 유동성. 유동성 Proxy 인 금은 원자재의 상승 방향 제시
- 빨라지는 AI 산업화, 그러나 수요와 달리 준비되지 않은 원자재 공급
- 이러한 가운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중동 공급망, 재강조될 에너지 자립

뒤늦게 반영될 유동성, 원자재 슈퍼 사이클 기대

금은 유동성이 무분별하게 팽창될 때 자산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헷지 자산이다. 이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에 선행 자산인 주식보다 유동성을 먼저 반영한다. 그런 금 가격은 연초 사상 최고치에서 온스당 4,000달러 초중반 수준으로 레벨이 낮아졌다.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인하 순-횡수는 빠르게 하락 중이다. FED는 정책금리 인상을 주저하지만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긴축으로 돌아섰다. 유동성을 선반영하는 자산에는 불리한 환경이다. 그러나 유동성을 뒤늦게 반영하는 자산에게는 기회이다. 바로 에너지와 곡물이다. 이론적으로 원자재는 유동성이 발생할 시 '귀금속 → 비철금속 → 에너지 → 농산물' 순으로 시차를 두고 상승한다. 유동성 Proxy인 금 가격을 기준으로 지금 당장은 비철금속이 주도하는 사이클이지만 내년에는 에너지가 주도할 시기이다. 모두가 관심 없는 지금, 오히려 에너지 중심의 슈퍼 사이클을 준비해야 하는 때이다.

빨라지는 AI 산업화, 수요와 달리 준비되지 않은 원자재 공급

수급 역시 고민이 필요하다. AI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폭발한 반도체 수요는 SOX 지수를 사상 최고치까지 상승시킨 바 있다. 그러나 AI는 원자재까지 필요로 한다. 기존 검색 엔진보다 9배 이상 전력을 사용하기에 다량의 에너지가 요구된다. 송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고압 송전 설비까지 요구되는데 이 때문에 일반 전력망보다 5~7배 많은 구리가 사용된다. 문제는 공급은 준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남미 광산들은 공급 과잉 사태가 발생한 '13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개발 투자를 진행한 바 없다. 전력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천연가스(수반 가스)는 유전에서 부산물로 생산된다. 그간 오일 메이저 기업들은 탄소중립 포퓰리즘 탓에 유전 개발을 7년째 미뤘다. 공급이 이들의 CapEx 투자를 7년 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신규 공급은 제한된다. 전 세계 전력원의 76%(화석 연료)가 흔들리는 것이다. 과거 일본과 중국의 산업화 때처럼 이번에도 공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신뢰를 잃어버린 공급망, 재강조될 에너지 자립

이 같은 상황에서 장기화될 중동 공급망 쇼크는 원자재를 한층 더 상승시킬 원동력이다. 미국-이란 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미 중간 선거를 앞둔 소일 뿐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휴전임에도 선박들이 피격 받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사태는 레이 달리오가 말한 것처럼 구조적이고 영구적인 문제이다. 유럽/중동에 집중됐던 미군 전력은 오바마 행정부의 Pivot to Asia(중국 견제) 선언을 기점으로 서태평양으로 빠르게 재편됐다. 미국이 나간 틈 사이로 크고 작은 전쟁이 빈번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리비아-시리아 내전('11년)과 ISIS 창궐('14년), 유럽 에너지 위기를 불러온 돈바스 전쟁('14년)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22년), 중동 공급망을 뒤흔든 이스라엘-예멘 후티 반군 전쟁('23년)과 미국-이란 전쟁('26년)이 그것이다. 미국의 대외 전략에 변화가 없다면 지정학 위기는 불가피하다. 그렇기에 단순 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 테마까지 주목할 것을 권고한다.

바텍
(043150)

한송협

songhyeop.ha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7,000

상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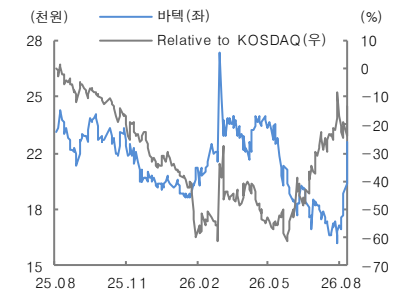
(26.08.11)

22,150

의료 장비 및 서비스 업종

KOSDAQ	857.84
시가총액	32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6%
자본금(보통주)	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7,350원 / 16,33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0억원
외국인지분율	22.89%
주요주주	바텍이우홀딩스 외 4인 53.65% FIDELITY MANAGEMENT & RESEARCH COMPANY LLC 외 12인 7.7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2.4	-4.3	7.3	-5.3
상대수익률	19.5	34.7	39.4	-10.4



미국서 보너스 받고, 유럽으로

- 26년 매출액 4,654억원(YoY+9%), 영업이익 616억원(YoY+12%) 전망
- 1Q 부진에도 2Q 외형 성장과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로 실적 회복
- 하반기를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연간 유의미한 영업이익 성장 가능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37,000원으로 15.6% 상향(기존 32,000원)

목표주가는 26F EPS 3,715원에 2022년 12개월 선행 PER 상단 9.9배를 적용해 산출. 2Q26 실적을 반영한 이익 추정치 상향과 Green X21의 유럽 판매 본격화를 감안해 목표주가를 상향. Target Multiple은 기존 9.9배를 유지

현 주가 기준 26F PER은 6.0배로, 글로벌 치과용 CBCT 판매대수 1위 사업자의 지위를 감안하면 저평가 상태. Green X21의 판매 지역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과 재평가 가능성은 유호

2Q26 Review: 사상 최대 매출, 일회성 제외해도 양호

2Q26 매출액은 1,214억원(YoY+10%)으로 분기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영업이익은 245억원(YoY+45%, OPM 20.2%)을 기록. 유럽과 아시아 매출이 각각 23%, 21%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견인. Green X21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별도 기준 3D 매출도 421억원(YoY+7%, QoQ+33%)으로 증가

이익단에는 미국 법인의 수입관세 환급금 약 50억원이 매출원가 차감으로 반영. 조정 영업이익은 195억원(YoY+15%), OPM 16%(YoY+0.7%p)로 추정. 일회성을 제외해도 외형 성장과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이익 증가를 확인

2026 Outlook: Green X21 유럽 판매 본격화

2026년 매출액 4,654억원(YoY+9%), 영업이익 616억원(YoY+12%, OPM 13.2%)을 전망. Green X21은 6월 말 유럽에 공식 출시돼 3Q26부터 매출 기여가 본격화될 전망. 전 제품의 CE MDR 인증도 완료해 기존 제품의 공급을 유지하면서 신규 프리미엄 라인업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

선진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ASP를 높이고, 신흥시장에서는 현지 법인과 보급형 제품을 통해 판매량을 확대할 전망. 치과용 영상장비의 교체주기(7~10년)를 감안하면 2021~2022년 판매분의 교체 수요도 2028년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

(단위: 십억원, %)

구분	2025	1Q26	2Q26			3Q26(F)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매출액	111	105	118	121	9.7	15.4	116	112
영업이익	17	11	15	25	45.4	123.1	15	13
순이익	7	14	10	23	209.4	56.2	13	11

자료: 바텍,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385	426	465	507	558
영업이익	54	55	62	67	83
세전순이익	72	55	77	83	94
총당기순이익	55	39	57	61	69
지배지분순이익	55	40	55	59	67
EPS	3,712	2,701	3,715	3,975	4,503
PER	5.1	7.2	5.3	5.0	4.4
BPS	30,524	33,371	38,227	45,266	57,946
PBR	0.6	0.6	0.6	0.5	0.4
ROE	12.9	8.5	10.4	9.5	8.7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 자료: 바텍,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161390)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박서영RA

seoyoung.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95,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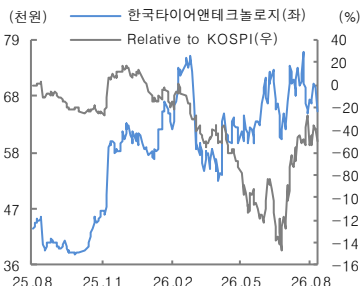
65,500

(26.08.11)

자동차업종

KOSPI	6345.53
시가총액	8,11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2%
자본금(보통주)	6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76,700원 / 38,1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87억원
외국인지분율	39.55%
주요주주	한국엔컴퍼니 외 22 인 43.19% 국민연금공단 8.0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4	7.2	-9.9	47.2
상대수익률	7.9	32.1	-24.0	-25.6



짧게 확인하고 길게 보자

- 2Q26 양호한 실적에도, 기대 이벤트 소멸로 당일 주가는 -6.4% 하락
- 3Q26 비용 부담에도 타이어 OP 4,000억원 중반대의 이익체력 예상
- 1) 테네시 플랜트업, 2) 배당성향 확대로 중장기 기업가치 우상향 예상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95,000원 유지

TP 9.5만원은 '26년 EPS 10,554원에 목표배수 8.9배 적용. 2Q26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적 시현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당일 주가 -6.4% 하락. 1) 실적 이벤트 소멸, 2) 3Q26 비용 상승에 따른 실적 피크아웃 우려 영향이라 판단. 3Q26 원자재/운임 상승에 따른 QoQ 수익성 둔화 예상하나, 1) 3Q 성수기 효과로 절대 이익 레벨은 견조, 2) 2027년 테네시 신공장 플랜트업 효과 반영, 3) 2027년 배당성향 개선(35%/예상DPS 5,000원) 예상. 1Q27 한온시스템 추가 지분매입 노이즈(한엔코PE 잔여지분 풋옵션) 있으나, 2026~27년 PER 5.8배에 불과해 중장기 매력은 여전하다는 판단

2Q26 타이어 매출 2.8조(YoY +12%), OP 4,831억(+40%), OPM 17% 시현

연결 매출 5.7조/OP 5,571억(OPM 10%) 시현. 연결 기준 OP 컨센(5,344억)/당사 추정(5,481억)에 부합. 타이어 부문 실적 또한 당사 추정(매출 2.7조/OP 4,696억)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 시현. 중동 리스크/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우려 있었으나, 고인차/SUV/친환경차 중심 수요 대응/믹스 개선 효과 지속. 1H26 원재료/운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있었으나, 래깅 시차로 2Q26 연결 실적 영향 제한. 영업 외에서 유로 대비 헝가리 포린트 강세로 외환손실 반영 3Q26 타이어 매출 2.9조/OP 4,753억/OPM 16% 추정. 1H26 원재료/운임비 상승분이 연결 손익에 반영되며 QoQ 수익성은 하락 예상하나, 3Q 윈터시즌 성수기 효과에 따른 Q/P 믹스효과로 절대 이익체력은 견조할 것으로 추정

DPS 2026년 2,550원 → 2027년 5,000원(배당수익률 7.6%) 예상

동사는 2025~27년 배당성향을 35%까지 상향하겠다는 가이드스 제시(vs 2025년 26%). 이에, 2027년 예상 DPS 5,000원으로 8/11일 종가 대비 배당 수익률 7.6% 전망. 2026년에는 배당총액 YoY +10% 달성으로 고배당 기업 요건을 지속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DPS 2,550원(중간 800원), 배당수익률 4% 확보. 2026~27년 1) 테네시/헝가리 공장 Capex 투자 마무리, 2) 테네시 공장 플랜트업(2027년 초 타겟) 효과로 실적 및 현금흐름 개선 → 주주환원 본격화 예상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	1Q26			2Q26			3Q26		
			직전	잠정	YoY	QoQ	Consen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5,370	5,314	5,596	5,683	5.8	6.9	5,639	5,876	8.6	3.4
영업이익	354	507	577	587	65.9	15.7	534	598	2.1	2.0
순이익	182	346	301	279	53.3	-19.4	329	323	-17.2	15.7

자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신세계
(004170)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00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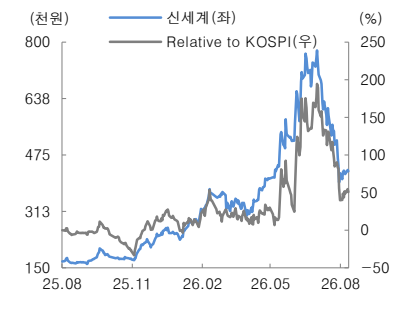
(26.08.11)

428,500

유통업종

KOSPI	6345.53
시가총액	4,04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6%
자본금(보통주)	4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776,000원 / 161,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33억원
외국인지분율	29.11%
주요주주	정유경 외 3 인 29.80% 국민연금공단 12.7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1.9	-3.8	17.4	159.2
상대수익률	-19.7	18.6	-0.9	31.0



모든 사업부가 그냥 다 좋다

- 백화점 국내 및 인바운드 매출 호조로 2분기 기존점 매출 27% 성장
- 면세점도 대규모 흑자 전환 기조 지속
- 자회사 부진 경쟁사와 달리, 모든 사업부가 다 세계 좋아지는 상황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000,000원 유지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000,000원(12개월 FWD 예상 P/E 15.5배) 유지

7월 극심한 주식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동사 백화점 기존점 매출 성장률은 15%를 기록. 8월은 6-7월 고성장했던 가전 매출 수요 완화 불구 양호한 매출 성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동사의 전 사업부가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 고환율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 백화점의 고성장 외에 면세점 및 신세계인터 실적이 대폭 개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센트럴시티(인바운드 이용객 증가)와 신세계 까사(주주 영업 영수 효과)도 영업이익 규모가 한단계 레벨업 되는 양상. 경쟁사들이 백화점의 호실적이 자회사 실적 부진으로 희석되는 반면, 동사는 자회사 실적 개선이 더해지며 실적 개선의 상승 작용 발생. 최근 주가 조정으로 valuation 매력도 커짐. 적극 매수 추천

2Q26 Review: 전사적으로 모든 사업부가 크게 개선

연결 기준 총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1,414억원(+8%, yoy), 1,671억원(+122%, yoy)을 기록하며 당사 및 컨센서스 상회 [백화점] 2분기 백화점 기존점 매출 성장률 +27%(관리 기준) 기록. 자산 효과에 따른 양호한 소비 심리를 바탕으로 명품 41%, 고마진 카테고리인 패션 10% 성장. 객수 및 객단가가 동시에 크게 증가(객수 +9%, 객단가 +17%)하는 이상적인 성장 기록. 외국인 매출액은 149%(1분기 90%) 증가하였고 외국인 매출 비중은 8%를 넘어섬. 지난 해 리뉴얼 효과로 명동 본점의 기존점 성장률은 77%에 달함(1분기 55%) [신세계 DF/SI] 신세계 DF는 FT 매출 증가와 시내점 할인율 하락(-4%p)으로 영업이익이 yoy 348억원 급증하며 전사 손익 개선에 대폭 기여. 신세계인터도 패션 소비 경기 회복으로 yoy 141억원 증가하며 큰 폭의 실적 개선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	3Q25	직전추정	잠정치	2Q26			3Q26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순매출액	1,694	1,847	1,725	1,780	5.1	-3.6	1,798	1,604	-1.9	-9.9
영업이익	75	198	161	167	121.8	-15.5	153	183	83.9	9.8
순이익	-2	120	71	90	흑전	-26.4	52	88	149.8	-2.5

자료: 신세계,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순매출액	6,570	6,929	7,135	7,356	7,811
영업이익	477	480	815	914	1,083
세전순이익	195	132	728	803	982
총당기순이익	187	65	561	619	756
자배자분순이익	108	14	471	520	635
EPS	10,948	1,440	49,607	55,015	67,214
PER	12.1	171.5	10.6	9.5	7.8
BPS	433,221	460,432	514,488	567,848	630,755
PBR	0.3	0.5	0.8	0.8	0.7
ROE	2.5	0.3	10.1	10.1	11.2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신세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서울반도체

(04689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Marketperform

시장수익률, 유지

6개월 목표주가

9,500

상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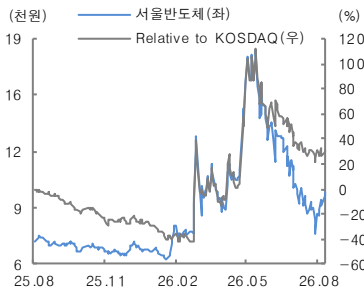
(26.08.11)

9,81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DAQ	857.84
시가총액	57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0%
자본금(보통주)	2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8,280원 / 5,83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98억원
외국인자본율	14.32%
주요주주	이정훈 외 2 인 28.5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5	-42.5	32.0	38.2
상대수익률	-4.8	-19.1	71.6	30.8



2Q 매출 증가는 긍정적

- 2Q26 영업이익(35억원)은 흑전(yoy/96.3% qoq), 추정 하회
- 3Q26 영업이익은 50억원(흑전 yoy/43.3% qoq) 추정
- 전장향 LED 매출 확대 등 고신뢰성 매출 증가에 신뢰성 확인 필요

투자의견 시장수익률(Marketperform) 유지, 목표주가 9,500원 상향

2026년 2Q 매출은 2,921억원(+16.1% yoy/+22.6% qoq), 영업이익은 34.9억원(흑전 yoy/+96.3% qoq) 시현. 추정대비 매출(2,758억원)은 상회, 영업이익(47억원)은 하회. 당기순이익은 61.9억원(흑전 yoy/-29.2% qoq) 기록. IT 및 전장, 조명 등 전 부문에서 양호한 성장으로 추정. 저수익 제품의 축소, 조명 및 전장에서 LED가 모듈 형태로 공급 등 평균공급단가 상승, 영업이익률이 개선.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1.2%로 0.5%p(qoq) 개선에 그친 점은 부담 평가

투자의견은 시장수익률(Marketperform) 유지하나 목표주가는 9,500원으로 상향(26.7%). 목표주가의 상향은 2026년 주당순이익을 31% 상향(법인세 환급)에 기인. 시장 수익률 유지는 2026년 2Q 영업이익이 추정을 하회, 2026년 하반기, IT향 LED에서 TV, 모바일 등 IT기기의 수요 둔화가 예상, 중국과 경쟁 심화가 지속. 노트북 및 태블릿PC 영역에서 OLED 패널로 전환을 반영하면 2027년 이후에 매출 성장에 부담. 또한 광통신향 매출 기대감은 존재하나 매출로 인식에 시간이 필요. 고신뢰성 제품 등 질적 성장 전략의 결과에 확인 필요

2Q26 매출은 16%(yoy) 증가, 영업이익은 흑자전환(yoy) 기록

2026년 2Q 매출은 2,921억원(+16.1% yoy/+22.6% qoq), 영업이익은 34.9억원(흑전 yoy/+96.3% qoq), 당기순이익은 61.9억원(흑전 yoy/-29.2% qoq), 지배순이익은 27.9억원(흑전 yoy/-43.7% qoq) 기록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	1Q26	직전추정	잠정치	2Q26		3Q26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52	238	262	292	16.1	22.6	0	309 20.1 5.6
영업이익	-8	2	4	3	흑전	96.3	0	5 흑전 43.3
순이익	-23	5	3	3	흑전	-43.7	0	3 79.8 9.7

자료: 서울반도체,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090	1,014	1,133	1,198	1,251
영업이익	-11	-32	15	28	36
세전순이익	-17	-44	19	25	34
총당기순이익	-11	-60	21	21	29
지배지분순이익	-15	-51	13	18	24
EPS	-249	-882	220	311	416
PER	NA	NA	43.9	31.0	23.2
BPS	11,553	10,630	10,855	11,170	11,591
PBR	0.6	0.6	0.9	0.9	0.8
ROE	-2.2	-8.0	2.0	2.8	3.7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서울반도체,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LS에코에너지 (22964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2,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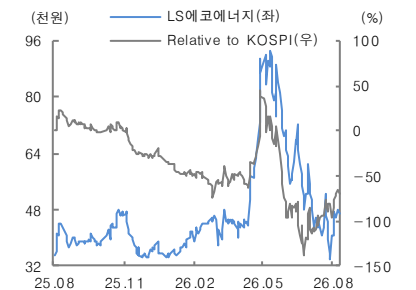
(26.08.11)

46,80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6345.53
시가총액	1,43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2%
자본금(보통주)	1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93,400원 / 34,0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57억원
외국인지분율	6.66%
주요주주	LS전선 외 6 인 64.37% 국민연금공단 6.0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1	-47.1	5.8	6.4
상대수익률	20.3	-34.7	-10.8	-46.2



Results Comment

2Q 예상을 상회, 신사업 추진도 구체화!

- 2Q26 매출과 영업이익은 40%(yoy), 7%(yoy) 증가, 컨센서스 상회
- 고부가인 초고압 전선 및 소재 관련한 매출 증가. 믹스 개선 확대
- 2026년 영업이익은 23.6%(yoy) 증가 추정, 희토류 사업 구체화 진행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62,000원 유지

2026년 2Q 매출(3,503억원)과 영업이익(253억원)은 각각 40%(yoy/22.7% qoq), 7%(yoy/25.6% qoq)씩 증가 동시에 컨센서스 대비 12.8%, 10.7%씩 상회하여 호실적을 기록. LS-VINA의 초고압 및 소재사업 실적 증가가 예상을 상회. 유럽향 초고압 수출 및 소재 판매 증가로 LS-VINA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26.6%(yoy), 4.3%(yoy)씩 증가. 또한 LSCV의 UTP케이블 원가 절감, 부스닥트 수출 호조로 수익성 개선이 높음. 투자의견은 매수(BUY) 및 목표주가는 62,000원(2026년 EPS X 목표 P/E 35.3배 적용) 유지. 2026년 주당순이익(EPS)을 종전대비 7.1% 상향

투자포인트는 ① 2026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9.3%(yoy), 23.6%(yoy) 증가 등 호조 전망 ② 초고압전력선 등 고부가 매출의 성장은 지속,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로 초고압 전력선 및 통신선 수요 증가 ③ 신성장 사업 추진인 희토류, 해저 광케이블 추진은 구체화 단계에 진입. 희토류는 라이너스(Lynas)와 글로벌 희토류 시장내 경쟁력 차원에서 전략적인 협력 강화 추진(상호 전환사채 인수 추진 중). 해저 케이블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앵커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 진행 중으로 판단

2Q26 매출은 40%(yoy), 영업이익은 7%(yoy) 증가

2026년 2Q에 예상 상회한 실적의 배경은 LS-VINA의 수익성 개선이 높음. 1Q에 베트남 내수 PJT 매출 반영으로 초고압선의 매출은 부진(QoQ)하였으나 2Q에 고부가 제품 MIX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은 개선 유지. LSCV는 UTP케이블 판매 증가 및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과 부스닥트 수출 호조가 QoQ 실적 개선을 견인

(단위: 십억원, %)

구분	2025	1Q26	2Q26				3Q26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50	285	294	350	40.0	22.7	310	304	30.7	-13.1
영업이익	24	20	19	25	7.0	25.6	23	20	37.4	-19.7
순이익	16	12	14	17	6.3	36.0	14	14	37.5	-20.2

자료: LS에코에너지,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869	960	1,241	1,265	1,276
영업이익	45	67	83	77	77
세전순이익	48	61	78	70	70
총당기순이익	35	48	60	54	54
지배지분순이익	31	42	54	50	50
EPS	1,020	1,374	1,758	1,636	1,641
PER	30.4	25.2	27.2	29.3	29.2
BPS	5,989	6,831	8,342	9,730	11,124
PBR	5.2	5.1	5.6	4.8	4.2
ROE	19.0	21.4	23.2	18.1	15.7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LS에코에너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